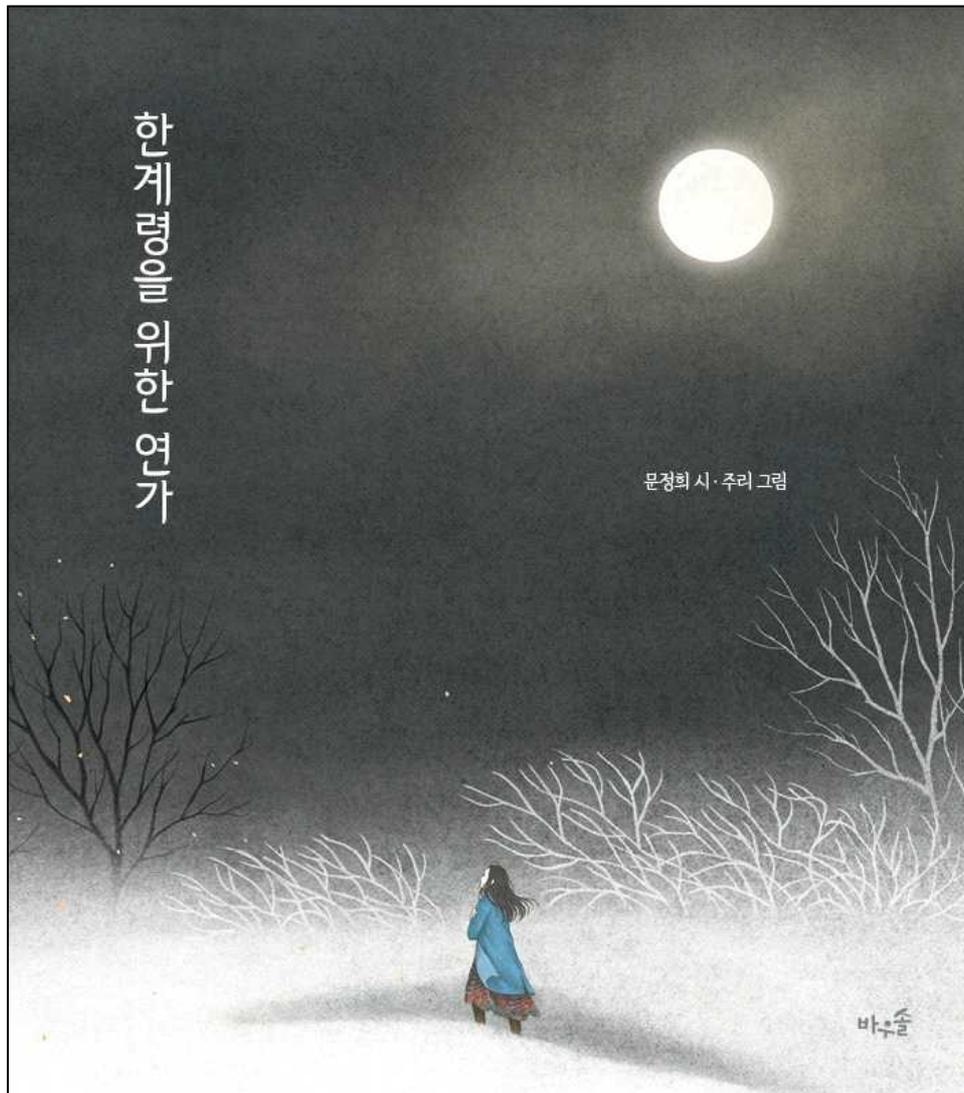


《한계령을 위한 연가》 독서지도안



삶의 한계에서 만난 사랑, 그 고요한 축복!
문정희 시의 정수, 고독과 사랑이 맞닿는 찰나의 빛 <한계령을 위한 연가>!

- 작가_ 문정희 시 | 주리 그림
- 출판사_ 풀과바람(바우솔)

본 독후 활동 자료는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정,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1. 도서 소개

설 틈 없이 바쁜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잠시 멈춤'의 순간을 꿈꿉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 순간이 쉽게 찾아오지 않죠. 《한계령을 위한 연가》 시 그림책은 한겨울 폭설이라는 극적인 상황을 통해 그 순간을 오롯이 독자에게 선물하고자 합니다.

문정희 시인의 대표 시 <한계령을 위한 연가>가 그림책으로 다시 피어났습니다. 한겨울, 눈 보라에 길이 막히듯 사랑에도 멈춤의 순간이 있습니다. 갑자기 내린 눈은 긴 고갯길에 쌓이고 쌓여 외부세계와 단절시키지만, 시인은 그 속에 기꺼이 갇히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 다급하게 움직이는 현실 속에서 휘몰아치는 눈발, 뜻하지 않은 고립으로 시인은 배경을 매섭고 두려운 공간으로 설정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성과 의미는 되레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쉬운 언어와 뚜렷한 리듬이 있어 가벼운 마음으로 읽기 시작하지만, 한 줄 한 줄 읽어 나가면 어느새 시가 가진 힘이 우리 마음속에 단단하게 자리 잡습니다. 주리 작가의 그림은 시가 가진 의미를 효과적으로 표현해 우리가 느끼는 감각을 한층 더 끌어올립니다.

폭설 속에서도 산과 나무는 살아 있고,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는 화자 역시 살아 있습니다. 여성, 관습이라는 한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인은 숨김없이 솔직한 감정들을 쏟아냅니다. 그런 까닭에 시는 사랑을 노래하는 '연가'가 아니라 단단한 '삶의 노래'로 읽힙니다. 독자는 책을 통해 사무치게 아름다운 우리의 삶과 그 속의 기쁨과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2. 지도 개요

- 대상 : 초등 3~6학년
- 관련 교과 영역 : 3학년 1학기 국어 1. 생생하게 표현해요
5. 인물에게 마음을 전해요
4학년 1학기 국어 1. 깊이 있게 읽어요
5. 말과 글로 전하는 생각
5학년 1학기 국어 1. 대화와 공감
10. 주인공이 되어
6학년 1학기 국어 8. 인물의 삶을 찾아서

• 지도 요점 :

한겨울 느닷없이 내린 폭설로 자동차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야단법석을 피우더라도 우리는 으레 펄펄 내리는 흰 눈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눈이 내릴 때마다 폭설로 발이 묶이는 한계령을 그리워하는 이가 많습니다. 못 잊을 사람과 한계에 못 이긴 척 기꺼이 묶인 한계령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시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소망이 솔직하고 강렬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구조의 손길도 거부한 채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화자의 소망은 다소 공상적이지만,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과 운명적으로 묶이고자 하는 간절함을 더욱 부각해 줍니다.

시를 읽고 어린이들과 함께 한겨울 사랑하는 사람들과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3. 책 이해하기

(1) 시 속 화자는 한겨울 누구와 한계령쯤을 넘다가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다 했나요?



- ① 어머니
- ② 친구
- ③ 아버지
- ④ 못 잊을 사람

□ -----

(2) 화자는 한계령의 무엇에 못 이긴 척 기꺼이 묶였으면 하고 바랐나요?



- ① 한계
- ② 풍요
- ③ 소식
- ④ 구멍

□ -----

(3) 시 속 화자는 사방이 온통 흰 것뿐인 동화의 나라에 발이 아니라 무엇이 묶이길 바라나요?



- ① 손
- ② 허리
- ③ 운명
- ④ 마음



(4) 눈 속에 갇힌 야생조들과 짐승들을 위해 골고루 먹이를 뿌려 주며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 ① 배
- ② 헬리콥터
- ③ 자동차
- ④ 오토바이



4. 확장활동

(1) 살면서 우리는 때때로 냉혹한 현실에, 한계에 부딪힙니다. 오르지 않는 성적, 최악의 취업난, 불안정한 생계에 시달리며 사람들은 많은 것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계는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요? 시를 읽고 친구들과 함께 '한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2) 시에서 화자는 폭설로 고립된 상황을 축복으로 여기며 기쁨과 행복을 느낍니다. 못 잇을 사람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못 잇을 사람'은 현재 화자가 사랑에 빠진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랑했던 사람일 수도 사랑하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못 잇을 사람이 있나요?



(3)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같이할 사람이 있음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요. 누군가와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는, 간혹 솔직해질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아니면 자신을 위해 어떤 용기를 내고 싶은가요?



[정답]

책 이해하기

(1) ④ 못 잊을 사람 | (2) ① 한계 | (3) ③ 운명 | (4) ② 헬리콥터

확장활동

- (1) 무너지지 않고 일어나려고 노력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가끔은 한계를 느끼긴 해도 포기하지 않으면 넘어설 수 있어요. 등
- (2) 어려움에 놓였을 때 도와준 친구가 잊히지 않아요.
맛있는 음식을 먼저 주시던 할머니가 늘 생각이 나요. 등
- (3)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거예요.
꿈을 이루기 위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등